‘쌍곡 경관 해설프로그램’

1. 기획 목적

○ 쌍곡지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경관을 대표하는 쌍곡구곡 및 주변의 산들에 대해 알아보고, 쌍곡의 유래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 상 자 : 청소년, 일반성인

○ 계　　절 : 사계절

○ 운영코스 : 쌍곡구곡

○ 소요시간 : 1시간

○ 참가인원 : 20명 내외

○ 운영주체 : 직원, 자연환경안내원

3. 프로그램 진행 목차

1. 인사나누기
2. 국립공원은 이런 곳입니다.
3. 쌍곡의 유래
4. 쌍곡 구곡 이야기
5. 쌍곡의 산 이야기
6. 산, 나무의 중요성 및 마무리

4. 시나리오

1. 인사나누기

안녕하세요? 저는 속리산 국립공원 쌍곡계곡에서 경관해설을 운영하는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은 저와 함께 쌍곡계곡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할텐데요. 쌍곡 9곡의 유래, 쌍곡의 산 이야기 등등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2.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어디인가요? 속리산 국립공원 쌍곡계곡의 소금강입니다. 저는 여기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국립공원이란 국가가 지정한 공원이에요. 즉,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 생태계, 문화, 그리고 경관지를 국가가 선정하여 공원으로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3. 쌍곡의 유래

쌍곡은 두개의 내와 골짜기 때문에 생긴 지명으로 제수리골과 방아골 그리고 제수리재에서 시작하는 내와 쌍곡폭포에서 모여서 흐르는 내를 말합니다.

4. 쌍곡구곡

이곳은 쌍곡 제 2곡에 해당하는 소금강이예요. 쌍곡의 구곡은 쌍곡계곡에 분포하고 있어서 한 눈에 9곡을 모두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선 쌍곡 구곡은 쌍곡계곡을 따라 9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하여 붙여졌는데요, 주희의 '무이구곡'을 따서 화양구곡이라 지었던 송시열 선생을 따라서 쌍곡 또한 구곡이라 명명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제1곡은 호롱소로 호롱불을 켜는 '호롱'하고 물이 적게 고여 있다는 의미의 '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그 옛날 소 옆 절벽에 호롱불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리지고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 제2곡은 소금강으로 그 아름다움이 금강산의 비경에 비견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여 소금강산이라는 뜻으로 소금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절벽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가까이서 보면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에 신기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소리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 제3곡은 떡바위입니다. 약 600㎡ 정도의 원형에 가까운 넓고 편편한 반석으로 옛날부터 쌍곡 마을에서는 해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하는 등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뽑아서 단오날에 이 반석에 오르게 하여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사람의 평소 훌륭한 행동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고 푸짐한 상품과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덕(德)반석이라고 불려 내려왔다가 현재는 그 모양이 시루떡을 펼쳐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떡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제4곡은 문수암으로 예전에 큰바위 아래 문수보살을 모신 암자가 있었다고 하여 문수암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위들과 돌담의 흔적만이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 제5곡은 쌍벽으로 10m 높이의 바위벽이 마주보고 장관을 연출한다고 하여 쌍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쌍벽과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 물이 이루어낸 장관이 바쁜 삶에 지친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곳입니다.
- 제6곡은 용소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수심이 깊어 명주실 한꾸러미가 다 풀려서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의 깊이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5 ~6m 정도의 수심만을 유지할 정도입니다.
- 제7곡 쌍곡폭포는 높이 8m정도의 폭포로 수줍은 촌색시의 치마폭처럼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 제8곡은 선녀탕으로 제수리재에서 내려오는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경 10m 정도의 소를 이루고 있고 수심은 2m남짓하여 지금도 선녀들이 달밤에 목욕하러 내려올 것 같은 환상에 빠져 들게 만드는 곳입니다.
- 제9곡은 장암으로 약 40m의 반석이 마당같이 넓다고 해서 마당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주위에 소나무들이 울창해서 더운 여름에 이곳에 들어가 있으면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5. 쌍곡의 산

쌍곡은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흐르는 형태로 주위에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탐방할 수 있는 산은 군자산, 칠보산, 그리고 장성봉·막장봉 이렇게 3코스가 있습니다.

- 군자산 : 덕망있는 군자가 기거했다고 하여 군자산이라 명명되어졌다는 설과 예전에 군자산에 군대가 주둔을 하였다고 해서 군대산이라 불리던 것이 군자산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 곳으로 군자산은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예전에는 이 산에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 산의 내부까지도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찌든 사람들이 군자산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돼지를 잡아 기우제를 지내고 돼지피를 근처에 뿌렸더니 산신령이 돼지피를 씻어 내려고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군자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군자산에는 산삼이 많다는 설로 욕심이 없고 당장 살기가 급급한 사람에게는 산삼을 캐가게 하지만, 훗날 욕심이 생겨 다시 찾는 다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 칠보산 : 일곱 개의 봉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칠봉산으로 불리던 것이 칠보산으로 변천 되었다고 합니다. 7가지의 보석이라 함은 불가해서 쓰는 말로 금, 은, 산호, 진주, 거저(바다조개), 마노(석영), 파리(수정)을 뜻합니다. 일곱 봉우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법정 탐방로를 따라 산을 오르다보면 4개의 봉우리만을 오르내리는 곳으로 특히, 가을 단풍이 절경을 만드는 곳입니다.
- 장성봉 · 막장봉 : 막장봉은 시묘살이골이 협곡을 이루어 광산의 갱도처럼 생겼는데, 그 끝에 이 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기암들이 줄지어 있는 바위능선들이 산행에 재미를 더하는 곳입니다.

장성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리장성이 들어선 듯한 장엄한 산세를 가지고 있는 산

으로 예전에는 수정을 캐던 수정 광산으로 알려졌던 산입니다. 이곳에서의 조망 또한 거칠 것이 없는 곳입니다.

6. 산, 나무의 중요성 및 마무리

산의 혜택 중에서 돈을 받고 파는 임산물 이외의 것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혜택 중에서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산이 나무가 직접 물을 만들언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산의 토양이 스펀지처럼 잘 발달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물을 흠뻑 받아들일 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산을 즐기면서 정해진 곳으로만 다니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의 여기저기를 마구 짓밟아 따이 굳어지게 되면 그 만큼 물을 담아 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밟지 않은 공간은 지렁이, 땅강아지와 같은 수많은 작은 생명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고 이들이 자기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산과 나무가 더 많은 물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우리 숲을 가꾸고 정리해 주어야 함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